

말 못할 고민이 생길 때가 있다. 문제가 너무 사소해서 말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그렇고, 문제가 너무 거대해서 말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때가 그렇다. 어느 경우든 그런 고민은 말 못할 고민이다. 이 상황에서 소통의 본능은 야속하게 느껴진다. 대부분의 문제를 말로 해결하는 인간에게 이런 저런 이유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그것 자체로 커다란 고문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일기를 쓴다. 일기는 스스로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가끔은 오래전에 썼던 일기들을 들춰본다. 좋은 얘기들은 거의 없고 나쁜 얘기들이 대부분이다. 거기에는 오해로 생긴 억울함이나 좌절로 생긴 무망함 따위들이 적혀있다. 사소한 사건들도 있고 자못 심각한 사건들도 있다. 어떤 사건들은 일기로 풀리기도 했고 어떤 사건들은 일기로 꼬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일기에 적힌 나의 마음은 정말로 진실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인 1592년. 군복을 입은 한 남자도 일기를 썼다. 그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 그가 짊어진 문제는 민족의 명운과 국토의 수호 같은 거대한 것들이었다. 한반도가 순식간에 난중의 길목에 놓여 졌을 때였다. 전례 없는 전쟁에 백성들은 혼비백산했지만, 조정에는 당파싸움만 계속되었다. 노론이니 소론이니, 북인이니 남인이니 하는 사색 당파가 어지럽게 뒤엉켰고 그 위로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 땅을 지키고자 한 젊은이들의 피로 바다가 매일 붉게 물들 때였다.

참혹했던 전쟁은 무려 7년간이나 계속됐다. 군복을 입은 남자의 일기 역시 그 참혹함의 두께만큼 쌓여갔다. 그는 무엇을 그리 분주하게 써내려갔던 것일까? 그 일기 안에는 적개심이 있었을까? 아니면 미처 숨기지 못한 두려움이 있었을까? 군법을 어긴 부하의 목을 얼음처럼 베어버리던 날, 그는 슬퍼했을까?

그 감정을 추측하는 일에는 특별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으로부터 421년 전 작성된 《난중일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난중일기》는 임진왜란(1592~1598)의 참혹함 속에서 작성된 이순신장군의 일기다. 거기에는 모두에게 강요됐던 두려움마저 사치로 삼아야 했던 한 남자의 외로운 진심이 적혀있다.

《난중일기》속 대부분의 문장들은 주어와 술어의 단순한 결합으로 쓰여 있다. 독자를 염두에 둔 글들이 손쉽게 화려해짐을 생각해 볼 때, 간명한 문체의 《난중일기》는 아마도 공개를 의도하지 않은 글일 것이다. 이러한 심증은 《난중일기》를 읽어 갈수록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물증들에 의해 차츰 사실로 굳어진다. 동료 장수에 대한 정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과 가정사에 대한 세세한 토로 등은 공개를 의도했다면 스스로 검열되었을 내용들이다.

공개를 의도하지 않은 글은 솔직하다. 또한 범인이 꾸밈수록 빛날 때 위인은

꾸미지 않을수록 빛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순신은 확실한 위인이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조차 그의 마음은 구국, 위민, 강병에 대한 생각들로 지배되었기 때문이다. “서풍이 차게 불어 마음이 불편하다.”(1592.08.27)라든가, “전선이 비교적 완전하여 기쁘다.”(1592.02.26) 같은 문장들은 개인의 희로애락조차 조국의 명운과 연결되었던 이순신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전쟁은 매 순간이 비극이었다. 그래서 이순신에게는 희로애락도 그 절반만 허락되었다. 기쁨과 즐거움 대신 슬픔과 노여움만이 거듭되었다. 부하 병사가 잡아온 청어의 마릿수까지 직접 챙기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그였지만, ‘군법 집행’을 위해서는 자식 같던 부하도 눈물을 머금고 처형해야만 했다. 전장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유고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부르짖으며 슬퍼하는 것”(1597.04.16)이 전부였다.

이순신에게 멸사봉공의 태도는 삶 그 자체였다. 그는 공익을 받들었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 뒤에도 “옥문 밖으로 나왔다.”(1597.04.01)는 한 마디면 충분했다. 그리고 그는 사육을 버렸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로 최후를 조용히 갈음할 수 있었다.

《난중일기》 전체를 관류하는 이 같은 모습은 여러 방면에서 그것을 단순한 일기 이상의 그 무엇으로 만들어낸다. 실로 《난중일기》의 진정한 가치는 ‘그 무엇’이라는 단어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난중일기》의 가치를 결코 하나의 개념어 안에는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난중일기》에서 16세기 말엽 조선 반도에서 일어난 이례적 전쟁의 민낯을 직접 볼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난중일기》에서 한 국가의 존립을 가능케 한 정신력의 거대한 수원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난중일기》를 통해 전쟁의 잔혹함에 둘러싸인 한 인간의 외로운 실존과 선연히 대면할 수 있다.

사실 우리 세대에게 멸사봉공, 구국, 강병과 같은 가치들은 낯설다.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런 가치들이 가끔은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국가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국가의 안정적인 존립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국권을 피탈 당했던 시기, 우리는 행복 대신 생존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았던가.

“아내의 병이 매우 중하다 한다. 그러나 나랏일이 이러하니 다른 일은 생각할 수 없다.” (1594.08.30)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이순신이 적어 내려간 이 한 줄은 읽는 이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국가의 존립.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조건을 위해 누군가는 개인의 모든 것은 포기해야만 했다. 너무 먼 시대의 일이라고 해서 무관한 일이 될 수는 없다. 인류의 역사에서 위기는 그 양상을 달리할 뿐 늘 존재해왔다.

2015년 대한민국은 도전과 응전의 회전문 사이에 어지럽게 갇혀있다. 새롭게 도전해야 할 문제들과 새롭게 도전받는 문제들이 안팎으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400여 년 전 쓰인 《난중일기》안에는 난마처럼 엮힌 지금의 위기를 해결해줄 묵직한 쾌도(快刀) 한 자루가 들어있다. 2013년 6월 UNESCO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된 아주 근사한 쾌도다. 틸틈이 시간을 내 그 칼을 조심스럽게 살피보는 것은 어떨까. 별처럼 아름다운 가치들이 칼날 위에 촘촘히 박혀 있을 것이다.

-이진영-